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 산업진흥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연은 현감 예원의 셋째 아들로 형 유유와 함께 글을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형이 산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 5년이 지나 예원이 죽자, 재산을 탐내던 자형 이지(李禔)가 유연이 유유의 아내 백 씨와 결탁하여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였다. 유연은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연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의 여론은 끝나지 않았으니, 장령\* 정엄이 경연\*에서 그 억울함을 논하였다. 이에 영의정 홍섬이 또한 말하기를 “예전에 신이 연의 옥사를 국문하는 자리에 참여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원한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도 능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실상을 조사하도록 명을 내려 주십시오.” 했으나,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하였다.

그 16년 뒤인 기묘년 겨울에 수찬 윤선각(지금은 윤국형이라고 개명했다.)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지난 경신년에 신이 순안현에서 걸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천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에 능하여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입에 풀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그와 함께 여러 달 같은 절에 있었는데, 자못 영남 지방의 산천과 선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기유년 중에 영천에서 보인 시험에서 나그네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물어보기를 ‘이렇다면 분명 남쪽의 선비일 것이니 무슨 연고로 여기에 왔소?’ 했더니 그 사람이 묵묵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신이 고향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박장춘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가 분명히 유유로다! 그때 나도 함께 낙방이 되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 갑자년에 신이 개천군 산 절에 있을 때에 천유용의 편지가 왔는데, 연이 대구에서 유를 죽여서 자복을 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신이 놀라서 사사로이 말하기를 ‘나는 천유용의 편지에서 보았을 뿐이다. 이가 만약 진짜 유라면 서쪽으로부터 남으로 와서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간의 날씨가 얼마인지 모르겠도다! 어찌 이 같은 것이 근거가 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신이 늘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천유용이 실제 살던 인물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신이 궁구하여 물어본 바로는 과연

유라고 생각합니다. 즉히 연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법부에서는 그를 잡아들였다.

연이 죽은 뒤로부터 이 씨는 기운을 못 차리고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남편의 원한을 풀어 주십사고 빌었다. 하루는 꿈에 연이 홀연히 와서 고하기를 “우리 형이 왔는데, 당신 또한 모르느냐?”라고 했다.

이 씨가 잠에서 깨어 울면서 말하기를 “아! 혼령이여! 그 징표를 주소서!” 하며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기를 처음처럼 했다.

다음 날 저녁에 천유용이 법부에 나아가니 이 씨가 듣고 곧 법부에 고소하기를 “㉠ 연이 사람을 죽였으며 식과 재물을 다투었다는 억지는 잘못 적용된 법입니다. 그 미망인 제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에 부르짖어 그 억울함을 풀려고 했으나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고 하니 삼가 연이 죽음에 임하여 남긴 말을 올립니다.” 했다.

유가 이르러 말하기를 “신은 천유용이 아니고, 진실로 유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력과 친족들, 하인들과 평소에 사귀어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두 말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유를 의심할 것이 없었다. 집을 나간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한즉 말하기를 “혼인을 하고 3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께서는 가업 잇는 것이 박복하다 하시면서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니, 이로 인하여 서쪽 지방에 들어가서 떠돌았기 때문에 끝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했다.

- 이항복, 「유연전(柳淵傳)」

\*장령: 조선 시대에, 사헌부(司憲府)에 속한 정사품 벼슬.

\*경연: 고려·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

1. 윤선각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결심을 굳히도록 하고 있다.
  - ② 도리를 강조하여 자신의 말에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
  - ③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 ④ 연의 잘못이 없음을 피력하여 임금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근거를 제시하여 사안에 대해 재고하게 하고 있다.

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의 생각에 대해 <보기>와 같이 말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지와 백 씨가 저지른 일은 (     )할 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 ① 부화뇌동(附和雷同)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천려일실(千慮一失)
- ④ 천인공노(天人共怒)
- ⑤ 후생가외(後生可畏)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덕령이 청정을 불러 왈,  
 “㉠ 네 종시 나를 경히 여겨 물러가지 아니하면 명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내 재주를 당하라.”  
 하고 간데없거늘, 청정이 고이히 여겨 군중에 전령하되,  
 “명일에 그놈이 다시 올 것이니 활과 총을 예비하였다가 일시에 쏘며 놓으라. 제 비록 천신이라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더니, ㉡ 익일에 덕령이 자취 없이 진중에 들어가 외쳐 왈,  
 “너희가 오히려 물러가지 아니하니, 너희를 한칼로 주륙(誅戮)할 것이로되,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라. 나의 신기한 재주를 보려 하거든 내가 명일 오시에 오리니 너희 군사들의 머리에 흰 종이를 각각 붙이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청정이 또 전령하되,  
 “명일 오시에 그놈이 또 올 것이니 조총을 준비하였다가 혹 짐승이라도 진문(陣門)을 범하거든 일시에 놓으

라.”  
 하고 ㉢ 군사들의 머리에 각각 종이를 붙이고 기다리더니, 문득 산중으로 내려와 불러 왈,  
 “네 종시 나의 출입을 모르고 당돌히 물러가지 아니하는가.”  
 하고 ‘풍(風)’ 자를 써 공중에 던지니, 문득 대풍이 일어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더니, 이윽고 천지 명랑하며 바람이 그치는 곳에 만군의 머리에 붙인 종이 간데없는지라. 또 청정을 불러 왈,  
 “너희 돌아감을 달래어 이르되 마침내 깨닫지 못하매, 오늘날 나의 재주를 보나니, 적수단신(赤手單身)으로 만군의 머리에 종이를 일시에 거둘 제 어찌 너희를 함몰치 못하리오마는 내 몸이 초토에 있고 나라에 허신(許身)치 아니하였기로 너의 명을 보전함이라.”  
 하고 햇뭇\*을 만들어 혼백을 붙여 진중에 들여보내니, 일진 장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덕령이라. 저의 시석(矢石)에 서로 맞아 주검이 되 같고 피 흘러 내가 되니 남은 군사는 겨우 백여 기(騎)라.

(중략)

병조 참판 이육이 주 왈,  
 “신이 듣자온즉 강원도 평강에 김덕령이란 자가 일대 용맹지사로서 난시를 당하와 몸을 감추어 청정의 진에 들어가 내응이 되었다 하오니, 급히 잡아다가 그 뜻을 물으사이다.”  
 한대, ㉣ 상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금부를 보내어 덕령을 잡아오라 하시다.

이때, 김덕령이 청정을 조화로써 물리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의금부 도사가 나명(拿命)을 전하거늘, 덕령이 급히 올새 철령에 다다라 도사더러 간청 왈,  
 “친한 사람을 잠깐 보고 가자.”  
 한대, 도사가 불청이거늘, 덕령이 대로 왈,  
 “아무리 어명인들 어찌 잠깐 사이를 사정(私情)이 없으리오.”

하며 소나무를 무수히 작별하니 도사가 실혼하여 아무 말도 못 하더니, ㉤ 이윽고 한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덕령의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공중에 올라 재주를 과시하고 땅에 내려와 앉으며 왈,

“덕령아, 내가 너더러 이런 환을 보리라 아니 일렀더냐. 이제 누구를 원(怨)하리오. 나는 이곳으로 좃아 산중에 들어가 세상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방성대곡한 후에 덕령이 그 사람을 이별하고 서울에 이르러 어전에 복지한대, 상이 진노하사 왈,

“네 재주를 품고 난시를 당하여 몸을 감춤은 무슨 연고이며, 적진에 들어가 청정으로 삼일을 상통함은 무슨 일인고.”

㉦ 덕령이 울며 왈,  
 “소신이 오대독자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초토\* 중에

노모를 데리고 있습기로 난시를 당하와도 나라를 돕지 못하옵고, 청정에게 왕래하옵기는 도적이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로소이다.”

㉔ 상이 익노(益怒)하사 형벌을 무수히 하시되, 덕령이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거늘, 상이 덕령의 죽지 아니함을 분노하사,

“무수히 치라.”

하신대, 덕령이 아뢰대,

“소신이 형벌로는 죽지 아니하옵 것이니 ‘만고충신 김덕령’이라 하여, 현판에 새겨 후세에 유전케 하오면 신이 스스로 죽사오리다.”

하거늘, 상이 할 수 없어,

“덕령의 말대로 시행하라.”

하시니, 그제야 덕령이 다리를 들어 비수로 비늘 하나를 떼고 ‘치라’ 하니, 나장이 매를 들어 친즉 즉각 죽으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壬辰錄)」

\*헛몸: 사람의 형상. 초인(草人).

\*초토: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김덕령은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우선시했다.
- ③ 공중에서 나타난 이도 신이한 능력을 지냈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등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4.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번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에서 주인공이 왜적과 싸우는 부분은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좁처럼 잠이 오지 않는 채 벌써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기미꼬 언니 생각, 금순이 생각에, 드디어 영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 느껴 울었다. 그러나 심사가 고약한 침모는 새벽녘 에 발견한 그 사실을, 그냥 제 가슴속에만 간수해 두지 않고, 소문은 그렇게도 쉽사리 나서, 영이의 조반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왜, 젊은 년이 밤낮 훌쩍훌쩍 우니? 그, 방정맞아 못쓴다.”

다시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그날 밤에, 남편은 떠름한 얼굴을 하고 돌아와 기미꼬가 모레 낮에 모교 다리 청요릿집에서 만나자더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작은사랑으로 나가며,

“누가 가뉘 댔단 말인가?”

반은 혼잣말로 그러한 말을 한마디 하였다.

밤새도록 시아재비 생일 차리느라 바쁘면서도, 그는 그 말이 어떻게 한 말임을 궁리해 보았으나, 알아내는

도리가 없었다.

기미꼬 언니가 어디서 남편을 보고, 자기와 만나자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인지, 그때 흑 웃음의 소리로 라도,

“그, 밤낮 영이를 가둬 두지만 말구, 더러 밖에두 줘 내노슈.”

그러한 말이라도 한 것이 비위에 틀려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야 이룰테면 어떻든 좋았다.

대체 기미꼬 언니는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는 것일꼬? 시집오기 전에, 나더러 마구 밖에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인가 거듭 타일러 준 것이 바로 그였는데, 그가 이렇게 나오라고 부르는 것에는 무슨 까닭이든 까닭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누구에게? 하고 생각하니 기미꼬의 몸 위에 일어난 일은 아닐 듯싶었다.

‘그럼, 어머니나 아버지 몸 위에? ……’

㉠ 사정을 모르는 만치 염려는 컸다. 즉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모레, 이틀씩 날을 둔 것을 보면 무슨 급한 일은 아닐 듯도 싶지만, 하여튼 그러면 또 그런대로, 내일은 꼭 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동안 혼자 가슴속에 쌓아 놓고 애타 하던 모든 설움을 터놓을까? 영이는 한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시 냉정히 생각해 보고, 그는 그것을 단념해 버렸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현재 자기가 행복되다 생각하고 있든, 불행되다 생각하고 있든, 자기는 결코 그이들에게 이 고생을, 이 슬픔을 알려서는 안 된다.

나의 일은 역시 나 혼자 처리할 것이요, 나의 슬픔도 오직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여, 결코 이 집을 나가 는 일 없이, 어디까지든 모든 박해와 싸워 가리라. ㉡ 그것은 이룰테면 영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여자가 자기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주위에 대하여, 복수를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개의 수단인 것이다.

‘모든 것을 참자.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약속한 날, 어머니가 기미꼬와 금순이를 따라, 무교정 청요릿집에서 몇 시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때, ㉢ 자기가 응당 좋아라고 뛰어나가리라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심사가 가증해서도, 영이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꼭 눌러 참고, 속달을 부치러 펜을 잡았던 것이다……

- 박태원, 「천변 풍경(川邊風景)」

5.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근대적 도시의 풍경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③ 일정한 시간 질서 없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다.

⑤ 암담한 사회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6. ㉢에 나타난 심적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과대망상(誇大妄想)
- ② 후회막급(後悔莫及)
- ③ 견물생심(見物生心)
- ④ 요령부득(要領不得)
- ⑤ 자격지심(自激之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옥랑이 옥에 갇힌 지 수삼 일이 지나니, 영흥 부사가 좌기를 엄숙히 하고 살육 죄인을 잡아들여 문초할 새, 옥랑이 큰칼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옥졸에게 부축되어 겨우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 기더라. 부사가 죄인을 살펴보니 전일에 가둔 죄인이 아닌 지라, 놀라며 이상히 생각한 부사는 일변 옥졸을 잡아들여 꿰어얹히고 꾸짖어 이르기를,

“살인자는 국법이 지엄하거늘, 네 감히 죄인을 임의로 바꾸었으니 그 죄는 죽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으려다!” 하며, 사령을 호령하여 형틀에 매어 놓고 벌하며 간계를 자세히 아뢰라 하니라.

그러하나 본디 처음에 이시업을 가둘 때 압송하던 옥졸은 갑자기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옥졸 이 거행하게 되었으니 그 진가(眞假)를 알지 못하였더라. 옥졸들이 천만뜻밖에 이러한 곤경을 당하니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즉시 원통함을 일컬으며 아뢰기를,

“소인들이 어찌 감히 막중한 관령을 받잡고 간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소인들은 저 죄인을 처음 압송하옵던 무리가 아니온 고로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오니, 당초에 분부를 받자온 옥리를 잡아들여 문초하옵시면 자초지종이 스스로 밝혀지겠나이다. 소인들은 실로 억울하오니 명정지하에 목숨은 바칠지라도 간계를 꾸민 일은 없사온즉 밝히 통촉하소서.”

하니, 부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죄인을 처음 압송한 옥리를 잡아들이라 하니라.

이때 그 옥리는 신병이 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는지라, 부사가 매우 노하여 하는 말이,

“병세가 중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죄를 지었으매, 거짓으로 칭병하여 죄를 모면하려 함이니 빨리 잡아들이려다.”

하며 호령이 추상같으니, 나졸이 성화같이 재촉하더라.

기실 그 옥리는 병세가 침중하여 기동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들어올 수 있으리오 마는, 관령이 지엄하니, 부득이 들것에 의지하여 들 [A]어가게 되니라. 부사가 살펴보매 옥리는 과연 병세가 침중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즉시 도로 내어보내라 하나, 미처 관문을 나지 못하여 죽는지라, 부사는 후회함을 마지아니 하더라.

이러하여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기로, 즉시 옥량을 형틀에 올려 매고 노한 음성으로 물어보되,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감히 죄인을 대신하여 갓히었으며, 처음 갓힌 죄인을 어디로 보내었느냐? 사실 대로 바로 아뢰되, 추호도 은취치 말렸다!”

하나, 옥량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태연히 ㉠ 공초(供招)하여 말하되,

[B] “죄인은 원래 본군 김 좌수의 딸 옥량이온데, 고원 땅 이춘발의 아들 시업과 혼인을 맺었 삽기로 금월 십오일이 혼례일이오라 친사를 맺고자 길을 차려 오옵더니 종로에서 불행히도 어망홍리(魚網鴻離)로 뜻밖의 변을 당하와 죽게 되었나이다. 죄첩은 듣자오니 ‘남자는 여자의 소천(所天)이라.’ 하옵기로, 여 자의 도리는 타인에게 한번 허락하면 목숨이 다하 도록 고치지 아니하는 법이오니, 가군이 실지 로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의리는 또 따라 죽사옵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성문실 화(城門失火)로 감히 남복으로 갈아입고 옥리 를 속여 대신 갓히고 가군을 내어보냈사오니, 국법에는 죽을죄를 지었사오나 죄첩의 의리 에는 마땅하온지라 당장 죽사와도 여한이 없 사오니, 바라옵건대 속히 형벌을 밝히소서.”

이렇듯 남자의 언사가 매우 씩씩한지라, 부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이 지방에 왕화(王化)가 멀므로 풍속이 보잘것이 없 어 삼강오륜을 제대로 아는 자 드물거늘, 어찌 저러한 여자가 있을 줄을 뜻하였으리오? 이는 비록 옛날의 열 녀(烈女)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지니, 진실 로 아름답고 희한한 일이로다.’

부사는 즉시 사연을 갖춰 기록하여 감영에 장계를 올 려 아뢰니, 함경 감사가 이 보장을 읽어 보고 크게 칭 찬하기를,

“하방 여자로서 어찌 이런 식견이 있을까 보냐? 이는 진실로 범상한 여자가 아니니라.”

하며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무수 히 찬양하더라.

- 작자 미상, 「옥낭자전(玉娘子傳)」

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 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고전 소설의 대표적 특징

- 주제 : ‘권선징악(勸善懲惡)’을 형상화함
- 구성 : ·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을 취함
  - 행복한 결말을 보임
- 인물 : 주로 평면적 인물이 등장하여 선악의 대결 구도 를 펼침
- 사건 : 도술, 슬법 등의 전기적(傳奇的)인 사건이 자주 일어남

① 시업에 대해 희생적인 옥량의 선량함이 부각되고 있 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주제의 범주에서 벗 어나지 않는 것 같아.

② 행복한 결말이라는 내용을 통해 시업과의 해로까지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군.

③ 옥량과 시업의 삶이 행복한 결말로 귀결된다는 점에 서 고전 소설의 구성상 특징이 잘 나타나는군.

④ 시업과 부사 간의 선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양상이 다른 것 같아.

⑤ 특별히 전기적(傳奇的)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달리 사실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8. 위 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옥량을 칭찬하고 있다.

② 옥량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폐단을 지적하며 처벌 을 바라고 있다.

③ 옥량은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④ 옥량은 윤리적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옥량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 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흥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 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현대 더듬이 모양 깔렸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형겅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짹짹하고 간사한 게 어떤 탄사람의 목소리였다.

(중략)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 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이냐 어 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 래 막을 놉 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 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백 갑 절 더 힘든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 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 — 지지리 고생 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 도 늙은 어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에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 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 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녀가 세상을 모른다고 해도, 산등성을 악착스레 깎아내 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두 내 나라를 찾았다게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을 때 입었던 흥치마를 꺼내 입구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너머 세상이지그래.”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 사변으로 바로 발밑에 뻘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데것 보라. 담이 흠뻑 무너졌는데. 삼팔선의 담이 데렇게 무너졌는데. 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였다.

9. 윗글을 통하여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 ① 분단을 가져온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극복
- ②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적 의지
- ③ 혼란기를 극복해 가는 젊은 세대의 의지
- ④ 부정과 허위로 가득찬 현실에 대한 강렬한 고발
- ⑤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와 물질적 빈궁

10. ㉠과 가장 가까운 정서를 드러낸 것은?

- ①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 ②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내리는 비. / 저으기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 하오.
- ③ 들마다 늦은 가을 찬바람이 움직이네. / 벼 이삭 수수 이삭 으슬으슬 속삭이고 / 밭머리 해그림자도 바쁜 듯이 가누나.
- ④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지고 / 뉘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

니 맞으리

⑤ 본래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 미진도 가까이 앓고 우로 받아 사느니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열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ㄱ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ㄴ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에서 '이 세상'은 자유와 이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 ②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 ③ 애국가의 '가사'를 인용하여 조국애를 강요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군사 정권의 현실하에서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⑤ 이상화된 현실인 애국가의 배경 화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각이 나타나 있다.

12. 이 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좌절
  - ② 어두운 시대 현실 속의 고뇌와 자기 성찰
  - ③ 공동체 의식으로 조화롭게 사는 삶의 추구
  - ④ 현실의 고통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이상향의 추구
  - ⑤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나는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창문, 다시 열면  
 창문, 창문, 창문……  
 창문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골의 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닦이의 편지」

13. <보기>와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얹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 ① <보기>와 위 시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다.
- ② 위 시와 <보기>에서는 대상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다.
- ③ <보기>와 위 시 모두 '유리창'이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보기>와 위 시 모두 '유리창'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에서는 '유리창'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14. 위 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진술적인 표현으로 인해 시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 ②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을 획득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통해 인간에게 가치 있는 정신을 찾아내고 있다.
- ④ 격정적인 목소리로 서정적 자아의 감정을 직접 도로 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조적 태도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1) <답> ⑤

2) <답> ④

3) <답> ⑤

적진에 들어간 김덕령은 적들을 현혹하며 자신의 능력이 대단히 큼을 암시한다. 이에 가등청정은 부하들에게 백지를 머리에 붙이게 하고 김덕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기로 한다. 김덕령의 능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두려워서 종이를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답> ④

이 글과 보기에서는 특별히 서술자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5) <답> ①

6) <답> ⑤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자격지심'의 발로이다.

7) <답> ④

이 글에서 시업이 부사의 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나 그렇다고 선악 대결을 벌이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⑤

옥랑이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례를 들어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④ 옥랑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윤리적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9) <답> ⑤

이 글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고향마저 잃어버린 철호 일가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①의 경우 분단의 문제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갈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② 부조리한 현실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개하려는 저항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전후 혼란기에 좌절

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④ 부정적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궁핍이나 분단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암시적 수준이지 강렬한 고발 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10) <답> 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작품을 찾아보자. ①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

② 님이 떠날까봐 애태우는 마음 ③ 가을 들녘의 풍경 ④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푸근한 정취 ⑤ 난초의 고결함에 대한 찬양

11) <답> ①

이 세상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치하의 시대를 의미한다.

12) <답> ①

이 시에서는 독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통치와 획일화되고, 강요된 애국심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의 '주저 않는다'는 표현은 부정적 허탈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다.

13) <답> ⑤

보기에서 화자는 성에꽃을 보면서 서민들과 친구를 떠올리고 있다.

14) <답> ②

시 전체적으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드러난다.